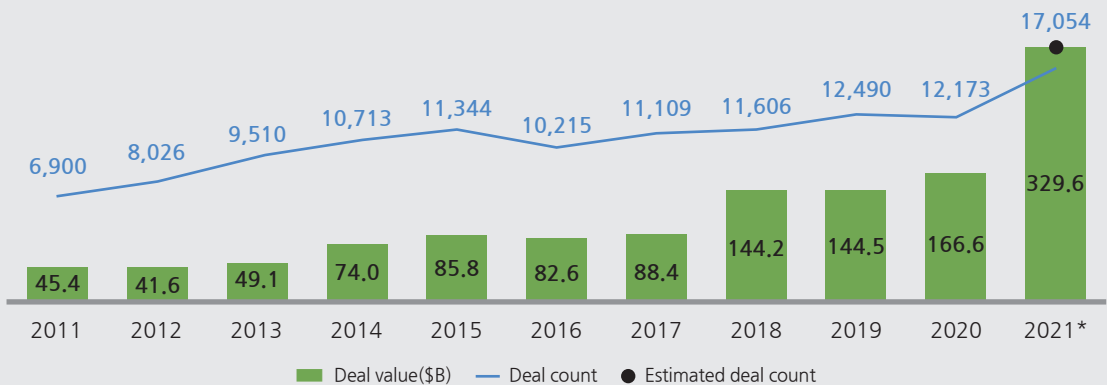


바이오산업 투자동향 및 전망

문세영 상무 이에스인베스터
 김명기 대표 엘에스케이인베스트먼트

바이오산업의 벤처투자는 2020년까지 꾸준한 성장을 보였고, 전체 신규투자 금액 중 27.8%를 기록하며 투자 매력에 높은 분야임을 입증했다. 이런 높은 투자 관심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제약산업, 의료기기산업 모두 소수 글로벌 기업이 시장을 과점하는 양상이 고착화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혁신기술에 의한 시장 확장과 변화 속에 다양한 기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육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21년에도 전체 벤처투자 증가 기조에 따라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 역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최근 투자 모멘텀이 감소하고 있어 바이오산업의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1] 미국 벤처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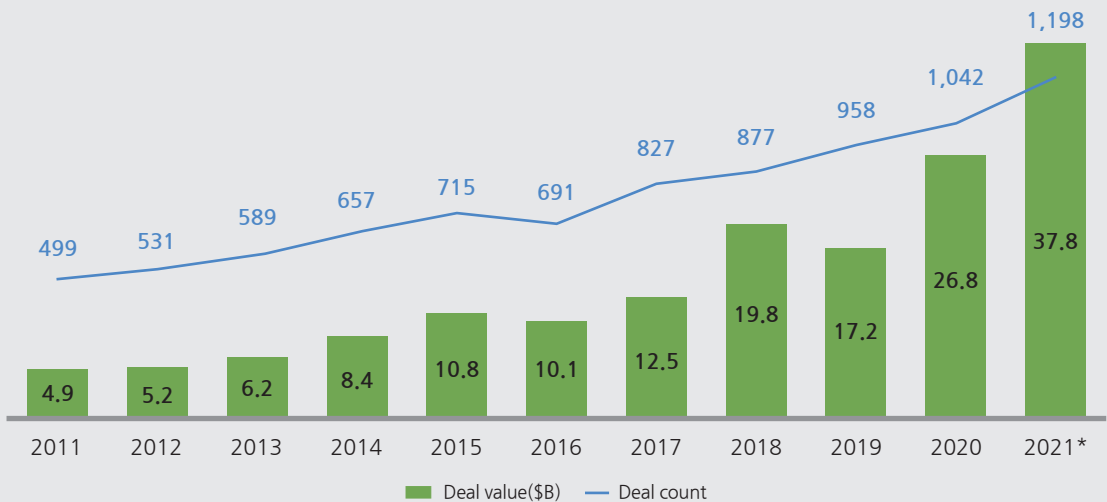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NVCA, Q4 2021 Venture Monitor, 2022

2021년은 벤처투자업계에 기록적인 숫자를 남겼다. 먼저 미국의 벤처투자 활동을 보면 2021년 신규 투자금액은 총 3,296억 달러로 전년 (1,666억 달러) 대비 2

배에 육박한다. PitchBook과 미국 벤처캐피탈협회(NVCA)의 2021 4Q Venture Monitor에서는 이같은 벤처투자 확대 현상의 원인으로 유동성을 지목하고 있다. 유동성이 풍부해짐에 따라 벤처캐피탈의 현금성 자산(dry powder)이 상승하고, 자산 운용사(crossover investor; 주로 상장시장에 투자하면서 비상장에도 투자하는 자산 운용사를 지칭)의 시장참여가 확대됐다. 자연스럽게 투자에 대한 경쟁으로 인해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21년 미국 벤처캐피탈의 바이오산업(Biotech & pharma)에 대한 투자 역시 378억 달러로 전년 수치인 268억 달러 대비 41%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가 규모 측면에서 상당한 수준이지만 벤처투자 전체 증가율을 감안하면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는 타 분야 대비 다소 주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2] 미국 바이오텍 및 제약 분야 VC 투자 추이



출처: PitchBook-NVCA, Q4 2021 Venture Monitor, 2022

국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21년 국내 벤처캐피탈 신규 투자는 총 7조 6,802 억원으로 전년도 4조 3,045억원 대비 78% 증가했다. 이 중 바이오/의료 분야 투자는 총 1조 6,770억원으로 전년도 1조 1,970억원 대비 40% 증가해 전체 신규 투자 중 21.8%를 차지했다. 분야별 비중은 31.6%가 투자된 ICT서비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투자한 분야이나 전년 대비 증가율은 두 번째로 낮다. 다만, 최근 5년간 신규 투자금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45.1%로 47.3%를 기록한 ICT서비스 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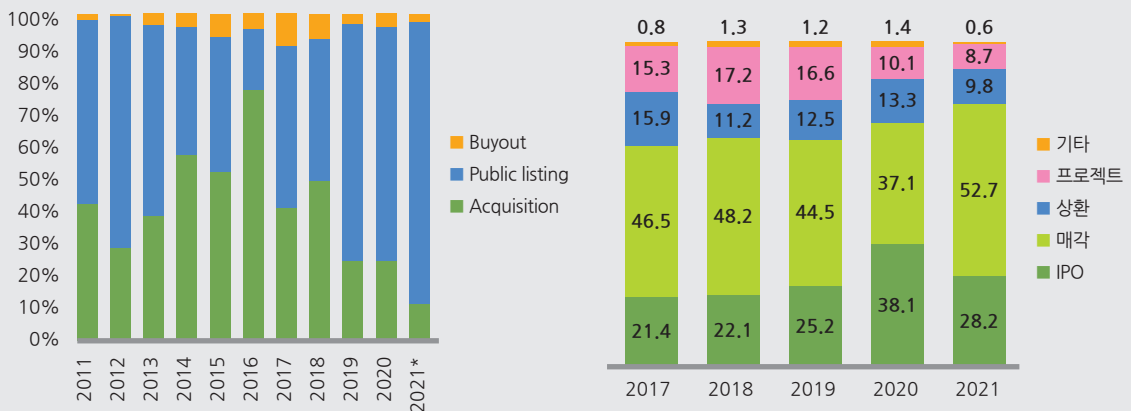
[표 1] 업종별 신규투자 금액 (단위: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투자 비중	전년 대비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ICT제조	1,566	1,489	1,493	1,870	3,523	4.6%	88%	22.5%
ICT서비스	5,159	7,468	10,446	10,764	24,283	31.6%	126%	47.3%
전기/기계/장비	2,407	2,990	2,036	2,738	5,172	3.7%	89%	21.1%
화학/소재	1,270	1,351	1,211	1,765	2,297	3.0%	30%	16.0%
바이오/의료	3,788	8,417	11,033	11,970	16,770	21.8%	40%	45.1%
영상/공영/음반	2,874	3,321	3,703	2,902	4,161	5.4%	43%	9.7%
게임	1,269	1,411	1,192	1,249	2,355	3.1%	89%	16.7%
유통/서비스	4,187	5,726	8,145	7,242	14,548	18.9%	101%	36.5%
기타	1,283	2,077	3,518	2,546	3,693	4.8%	45%	30.3%
합계	23,803	34,250	42,777	43,046	76,802	100%	78%	34.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21년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2022 재가공

향후 투자전망을 위해 고려할 몇 가지 사안들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거시 경제요건의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2년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인상을 시사함에 따라 그간 COVID-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실시한 양적완화를 종료하고 양적긴축 모드로 돌입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평가에 반영하는 모습이다. 금리 상승은 벤처캐피탈의 입장에서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의 난이도 상승을 의미한다. 자연스럽게 중대형 벤처캐피탈에 자금이 집중되고, 이들의 관심영역 위주로 선별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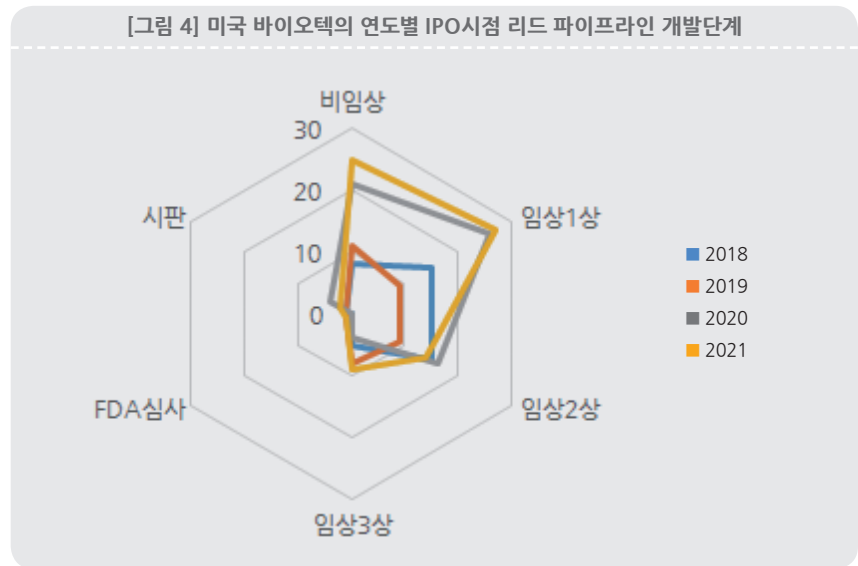
[그림 3] 미국(좌)과 한국(우) VC의 유형별 회수 비중 추이 (단위: %)



출처: PitchBook-NVCA, Q4 2021 Venture Monitor, 2022,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21년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2022

다음으로 바이오섹터 상장시장의 평가도 다소 벤처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벤처캐피탈의 주요 회수경로를 보면 전통적으로 IPO보다는 M&A에 의한 회수가 주를 이루던 미국도 최근 SPAC 상장을 포함한 IPO에 의한 회수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아졌다. 국내의 경우에도 조합 만기 등의 이유로 인한 세컨더리 매각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IPO가 벤처캐피탈의 주요 회수 전략임은 자명하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코스닥에 상장한 100개 회사 중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은 곳은 62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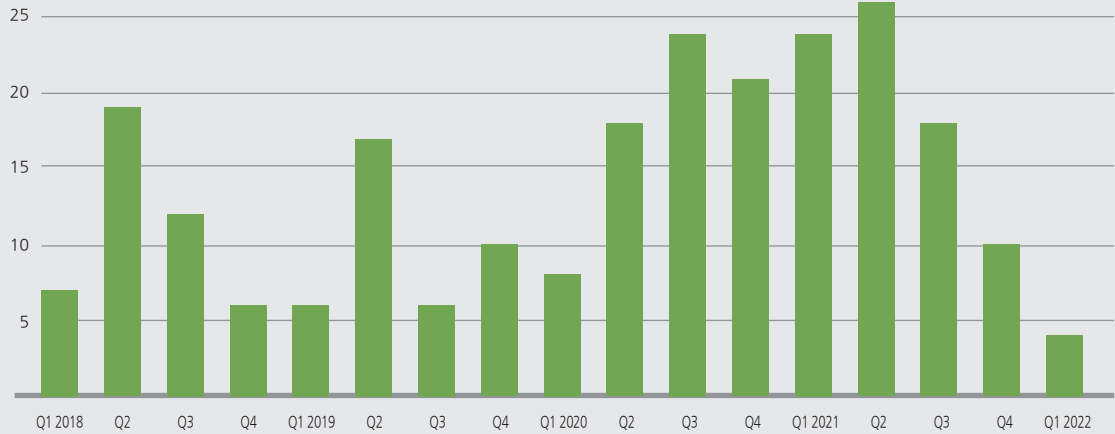
[그림 4] 미국 바이오텍의 연도별 IPO시점 리드 파이프라인 개발단계



출처: Biopharmadive, 재구성

미국의 경우 IPO가 급증하면서 비교적 개발초기 단계의 바이오텍들이 다수 IPO로 자금을 조달했다. 2020-2021년 바이오텍 IPO 사례 중 비임상 및 임상1상 단계 기업 수는 총 47개, 52건으로 2018-2019기간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이후 단계의 IPO 기업 수에 크게 변화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 2년간 비교적 초기개발단계에 있는 바이오텍의 상장사례가 증가는 다소 이례적이다. 의미 있는 혁신(임상단계 충족, 대규모 L/O 내지 피인수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섹터에 대한 자금유입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분기별 공모금액 50백만 달러 이상의 바이오텍 IPO는 2021년 2분기를 정점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그림 5] 분기별 미국 바이오텍 IPO 추이(50백만 달러 이상)



출처: Biopharmadive

국내의 경우 바이오산업 내 대다수 기업이 이익 미실현 단계에서 기술특례 제도를 이용하여 상장해왔다. 따라서 상장시장에서 바이오섹터에 대한 평가는 이미 상당한 기업들이 당초 사업계획과 기대에 걸맞은 실적과 성과를 만들어주는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기술의 사업화 단계에서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다 보니 보다 가능성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상장시켜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한 국거래소의 상장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진다는 평가가 있다. 2020년 코스닥 기술특례제도를 통한 상장기업은 25개사였고, 이 중 바이오 분야 기업은 17개였다. 반면 2021년은 총 31개 기업이 기술특례로 상장했으나 이 중 바이오 분야 기업은 9개에 그쳤다. 매년 증가하는 바이오분야 벤처투자를 고려하면 주요한 회수 전략에 제동이 걸리면서 투자 단계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산업에 대한 국내 벤처투자는 그간 꾸준히 증가해왔고, 벤처투자에 있어 바이오산업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진 것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다만, 금리인상과 같은 대외요인과 COVID-19로 인한 투자심리 변화와 상장심사 기조의 변화와 같은 대내 상황을 고려한 포트폴리오 비중 조정의 시기를 지나는 중이라고 판단한다.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는 바이오산업계와 그 혁신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벤처캐피탈업계의 노력에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시의적절한 지원정책이 더해져 COVID-19를 통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K-바이오의 위상에 걸맞은 양적 질적 성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자료 >

1. Ben Fidler, 2022, 'The music stopped': Biotech rout leaves drug startups grounded as demand slumps for IPOs, 2022.02.07
2. Cristiano Bellavitis, 2016, Do interest rates affect venture capital investments?, Academy of Management Proceedings, 2016.01.01
3. Kushal Agarwal, 2020, How interest rates affect private equity, Investopia, 2020.03.18.
4. PitchBook, NVCA, 2021, Q4 2020 Venture Monitor
5. PitchBook, NVCA, 2022, Q4 2021 Venture Monitor
6.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22, 2021년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Writer

문세영 이에스인베스터, 상무

Reviewer

김명기 엘에스케이인베스트먼트, 대표

BIO ECONOMY BRIEF

발행 : 2022년 2월 | 발행인 : 고한승 | 발행처 :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134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삼평동, 코리아바이오파크) C동 1층, www.koreabio.or.kr
 * 관련 문의 :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e-mail : Koreabio1@koreabio.org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KOREA BIO-ECONOMY RESEARCH CENTER

Innovating Data Into Strategy & Business



9 772508 681005 48
 ISSN 2508-6812